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30	11. 06	11. 13
대 표 기도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성 경 봉 독	이상호 목사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0월 축복인사 - 감사하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창립주일 - 오늘은 창립 39주년 되는 날입니다(1983년 10월 23일)
3. Sommerzeit 해제 - 다음 주일부터 해제됩니다(Handy 시계 확인하세요)
4. 나눔의 시간 - 감사라 성도(김영희 권사 장녀) Friedmund Neumann Prize 2022 수상 감사 도시락으로 섬겨주셨습니다.
5. 청년 소 모임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선교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창립기념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62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영희 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145 : 1 - 9 (구p907) (Psalm 145:1-9)	김영희 권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상호 목사

### †기도제목

1. 내게 베풀어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파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시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그분이 죽음도 감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시인들의 시에는 그분을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에나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고 싶어했습니다(시27:4)

그에 반해 우리는 그들이 몰랐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한 대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축제는 그 찢긴 몸, 그 흘린 피와 더불어 시작하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단순한 멜로디 위에 영적인 대위선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편들에는 지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여기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으나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 어떤 선물들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더욱 갈망하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의심할 여지없이 진짜인 어떤 경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옛 시인들과 마주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찬미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시편사색 / C. S. Lewis 작가  
(영국 작가)

###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다윗의 찬양을 통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요?
2.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